

## 화교지위 향상. 자유 경제 활동보장해야...양필승 교수

(매일경제 1999.09.05)

화교지위 향상. 자유 경제 활동보장해야...양필승 교수

[매일경제] 1999-09-06 00

= '화교네트워크와 차이나타운' 심포지엄 기획하는 = 서울 中國學中心

양필승 박사 (건국대 교수) 인터뷰 [김종호]

"아시아 총 자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국제 화교자본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화교들의 지위향상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돼야 합니다" 매일경제신문과 한중우호협회가 17 일 개최하는 '화교네트워크와 차이나타운' 심포지엄을 기획하고 있는 '서울중국학중심(中國學中心)'의 양 필승 박사(건국대 교수)는 이번 심포지엄이 세계 화교자본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선 화교자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점이 외환위기를 초래한 원인의 하나로 분석되면서 자본차입 다각화의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현재 아시아 1000 대 기업중 517 개를 화교들이 운영하고 있고 이들 기업의 총자산 규모는 5500 억달러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맞먹는다. 또 화교들이 보유한 유동자산은 2 조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화교자본의 한국진출은 말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화상(華商)들은 일반적으로 신규시장에 진출할 때 현지의 화교네트워 크를 통해 접근하는데 한국에는 이 같은 네트워크가 없기 때문이다.

"화교들은 지난해 7 월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이 없어질 때까지 200 평 이하의 토지만을 소유할 수 있었고, 현재까지도 5 년마다 한번씩 비자 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등 한국인들과 큰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이때문에 한때 20 만명에 달했던 화교들은 미국 캐나다 등지로 이민을 가 현재 1 만 5000 명 정도만이 한국에 남아 있습니다.

화교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화교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자유 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안으로의 세계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 다." 국제 화교자본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만큼 국내 화교들의 경제수준이 향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차이나타운이 활성화 가 필요하다는 것이 양 박사의 주장이다.

또한 교육열이 높은 화교들을 위해 화교학교를 정식학교로 인정하는 등 교육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양 박사는 "대만은 물론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불확실한 서구자 본 보다는 해외 화교자본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중국 인들과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화교자본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이번 심포지엄에서 북미와 일본의 차이나타운의 발전과정을 집중적으로 조명해보고 서울에 차이나타운을 개발하는 계획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 중국경제발전 과정에서의 해외 화교들의 역할과 화교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집중 토론이 이루어진다.

양 박사는 "이번 심포지엄이 단순히 화교자본 유치보다는 한국화교 (韓華)들의 지위를 향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